

공연 관람 전 5·18묘지 참배... '개념 돌' BTS 뒤에 '개념 팬'

“제이홉 노래 듣고 5·18 공금해 방문...광주 사연 듣고 눈물 나”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도 외국팬 수백여명 찾아 뜻 기려

“제이홉이 작사한 노래를 듣고 5·18이 공금해 찾아 왔는데, 불의에 맞서다 목숨을 잃은 광주시민들의 많은 사연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국내외 방탄소년단(BTS)팬들이 28일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SBS 슈퍼콘서트'에 앞서 제이홉(25·본명 정호석)의 고향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개념팬'의 행보를 보였다. 제이홉은 직접 작사한 'MA CITY'에서 '나 전남남도 광주 baby..', 날 날라면 시간은 7시 모여 집합 모두다 놀라라 062-518'란 노트말로 5·18을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언론보도와 SNS 부정 등에 앞장섰던 BTS팬들은 이번 광주 방문을 계기로 5·18 바로 알리기도 나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5시간여 앞둔 오후 2시까지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BTS의 국내외 팬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5·18민주묘지를 찾은 전북대학교 교환학생인 하나(여·25·베트남)씨와 갈리나 오스타펜코(여·23·우크라이나)씨, 조토바 나스자(여·20·우크라이나)씨, 구렌

게에바 디아나(여·20·카자흐스탄)씨 일행은 “BTS를 좋아해 팬클럽 ARMY에 ‘입대’ (방탄복과 군대처럼 방탄소년단도 팬클럽과 항상 함께라는 의미)한 절친사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 한국에 온 뒤 BTS를 통해 친해졌다고 한다.

한나씨 등은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콘서트 티켓팅에는 실패했지만, 외국인 개별 관광객(FIT)들을 위한 영문 온라인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장당 6만원을 주고 티켓을 구입해 꿈에 그리던 BTS 공연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새벽 일찍 전북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에 도착한 뒤, 곧바로 518번 버스를 타고 5·18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며 오월영령들을 위로했다.

디아나씨는 “공연 전 어디를 둘러볼까 고민하다 인터넷에서 접한 5·18민주묘지를 가장 먼저 찾기로 했다”며 “5·18 사적지를 운영하는 518번을 타고 광주 항쟁 현장을 살펴보고 싶어 버스 518번을 타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5·18민주묘지를 둘러보고 참배까지 마친 이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맞서다 목숨을 잃은 광주시민의 명복



미국과 독일, 러시아, 중국, 홍콩 등 전 세계에서 BTS공연을 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BTS해외팬들이 28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을 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들 중 BTS의 가장 광팬이라고 자처한 갈리나 오스타펜코씨는 “가족이 생길 때면 유튜브를 통해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며 마을을 달린다”면서 “제이홉이 태어난 광주를 오니 기분이 참 좋다. 전혀 낯선 느낌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방탄소년단 해외 팬들의 연령과 국적은 각기 달랐지만 소망은 한결 같았다. 방탄소년단 노래 ‘피 땀 눈물’처럼 피와 땀, 눈물의 희생정신을 일깨워 시민들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것이었다.

대전에서 온 김민지(여·30)씨도 “아쉽게

표를 구하지 못했지만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았다”면서 “최근 제이홉이 작사한 MA CITY를 듣고 5·18이 생감나 추모하기 위해 5·18민주묘지를 가장 먼저 찾았다”고 했다.

5·18최후항쟁지인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도 수백 명의 외국팬들이 방문해 뜻을 기렸다.

팬들은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이라고 써진 옛 도청 건물을 살펴보며 5·18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광주대동 정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한나(베트남), 갈리나 오스타펜코(우크라이나), 구렌게에바 디아나(카자흐스탄), 조토바 나스자(우크라이나·왼쪽부터)씨 등 방탄소년단 해외 여성팬들이 2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방에 불을 질러 생후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불

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정씨 측은 술에 만취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반박했다.

1·2심은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고의로 방화에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남구, 보조금 횡령 의혹 무료급식 단체 수사 의뢰

연간 1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노인 무료급식사업 단체가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A단체의 비리 여부를 밝혀달라는 수사 의뢰서를 복지담당 부서가 경찰에 제출했다.

A단체 운영진은 최근 내용을 겪고 있는

데 당사자끼리 비방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 주체 사이에서도 경찰 고발이 이뤄진 상황이다.

A단체는 2007년에도 당시 대표가 공금 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소년원서 성추행 10대, 항소심서 장기 3년 실행

소년원 수용 중 다른 재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항소심에서 단기 2년~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2017년 12월 모 지역 소년원 수감 도중 B군에게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년원에서 나온 뒤 2018년 8월 무안에서 절도 미수와 폭행을 저지르고 같은 해 9월 충남 천안에서 차량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0대 의붓딸 살해 혐의 경찰, 아버지 긴급체포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앞서 그는 2016년 5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 중 재소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성범죄로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특수절도죄로 장기 10개월, 절도미수와 폭행죄로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고, A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개의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은 보육시설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아직 사리 분별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기도 하다”면서도 “수차례 죄를 짓고, 강제추행한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왜 내밥 먹어”...아버지에 흥기 휘두른 조현병 아들 징역형

자신의 저녁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에게 흥기를 휘두른 조현병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아)는 “특수준속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현병으로 인해 피고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께 구례군 광의면 집에서 저녁밥을 먹은 아버지(85)를 막대기로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흥기로 아버지의 옆구리에 한차례 찌른 뒤 쓰러진 아버지를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호흡 잃고 쓰러진 40대 女, 지나가던 경찰 심폐소생술로 구사일생

호흡 잃고 쓰러진 40대 여성이 우연히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구사일생.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40분께 나주시 동신대학교에서 보육교사 연수를 받던 중 의식을 잃은 A(여·49)씨를 전남경찰청 소속 박금성(48) 경위가 흥부압박 심폐

소생술로 의식을 되찾게 한 뒤 무사히 119에 인계했다는 것.

○·이날 순경 공채시험 감독을 마치고 지나가던 중 우연히 A씨를 발견해 구조한 박 경위는 “쓰러져 있는 여성을 보고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평소 훈련했던 응급처치법을 진행했다. A씨가 건강을 되찾았다고해 다행”이라며 안도의 웃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래지점